

資源내쇼날리즘과 韓國經濟

國際資源危機와 우리企業의 經營戰略

高麗大學校 敎授 宋 基 澈

1. 資源危機

資源問題는 世界의 課題, 世紀의 課題로 된 느낌이 없지 않다. 急速한 經濟開發을 推進하고 있는 우리로서 특히 資源多消費型의 産業構造로 指向하는 重化學工業에 力點을 두고 輸入原資材를 加工시켜 輸出第一主義로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追求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國民經濟적으로 볼 때에도 커다란 衝激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背景을 反映하여 大韓商議가 72年度의 企業經營上 隘路要因을 調査 分析한 결과 71年度에는 販賣管理部門의 隘路要因이 컸으나 72年度에는 生産管理部門(28.7%)으로 바뀌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原資材 調達과 外產資材 價昂問題 등이 큰 隘路要因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것은 國際原資材波動이 本格化하지 않던 72년에 있어서의 隘路要因이고 73년에 들어와서의 隘路要因 調査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國際原資材波動이 本格化하였고 이에 곁들여 中東戰爭을 契機로 한 石油類의 政治武器化는 더욱 國際原資材危機를 激化시켜 73年度의 企業經營上 最大隘路가 될 뿐만 아니라 닥아 오는 74年度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70年代 아니 그 今後에도 國民經濟上 혹은 企業經營上 最大隘路要因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우리의 資源現實

넓은 뜻으로서의 資源은 物質을 生成하는 機能을 當하는 天然資源과 이를 評價하고 需要하는 文化資源 그리고 評價에서 需要에 이르는 諸作用에 參加하고 能力에 따라서 參與하는 人間資源으로 構成된다. 그러나 우리가 뜻하는 資源이란 물론 天然資源으로서 그것도 更新天然資源과 非更新天然資源으로 大別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資源은 좁은 뜻으로서의 資源인 天然資源 즉 更新資源과 非更新資源을 뜻하는 것이다. 이 更新資源은 森林水產資源을 뜻하여 非更新資源은 鑛物資源을 뜻하는데 이들 거의 모두가 不足하거나 賦存치 않아 資源不足現象이 招來되고 있음이 現實이다.

예를 든다면 更新資源으로서의 쌀, 原麥, 原糖, 原木, 原毛, 原皮 등 非更新資源으로서의 原鑛石, 原波, 原料炭, 錳, 亞鉛, 鉛, 알루미늄, 니켈 등의 各 資源은 經濟開發과 人口增加와 더불어 그 需要는 急増하고 있음에 반하여 國內調達의 결핍 혹은 賦存資源의 殆無로 輸入依存度는 急上昇하고 있는 現實이다.

한편 이들 各種資源을 供給할 수 있는 國家들은 賦存되어 있는 自然資源의 枯渴 등에서 오는 需給上的 基礎의 不均衡과 이들 賦存資源을 最大限으로 그들의 國家와 民族을 위해서 活用하려는 資源民族主義의 擡頭로 우리나라와 같이 賦存資源이 결핍되어 있는 國家

로서는 무거운 力壓과 危機에 逢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冷靜한 現實을 冷靜히 認識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危機感을 높인다고 해서 이 危機感만으로 단단히 解決될 수 있는 問題는 아닌 것이다. 冷靜하게 생각하고 謙虛한 마음으로 自然을 내다 보면서 果敢한 行動力으로써 他人의 立場도 配慮하면서 協力해 나가야만 비로소 解決의 실마리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政府와 國民이 할 일

우리가 逢着하기 시작한 資源問題는 이제 새로운 次元에서 政府와 國民, 그리고 企業이 三位一體의 努力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成果를 期待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資源問題는 率直히 말해서 現代國家로서의 政府가 할 일이 第一 많았다고 본다.

먼저 政府는 70年代 더 나아가서 80年代로 向하는 우리 經濟가 主要資源의 需要伸長率이 높아가고 있는 資源輸入國化하고 있어 國內資源과 對比해 볼 때에 資源多消費型의 産業構造를 가지고 加工貿易主義가 接續되어 資源의 海外依存度가 높아져 韓國經濟 基礎의 脆弱性이 露出되고 있음에 빛추어 從前과 같은 安易한 資源觀을 構成하고 새로운 次元의 資源觀確立이 要望된다는 것이다.

돈을 어디서 마련만 하면 資源이 適當한 價格으로 適切한 方法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같은 舊은 思考方式은 이제 止場되어야 할 것을 뜻하는 것이다. 從前의 思考方式을 갖고는 우리나라가 必要로 하는 資源을 低廉하고도 安定하게 確保하여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寄與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資源이 갖는 偏在性和 枯竭性 資源의 國際大資本支配, 資源流通의 特異性, 資源價格의 特異性 등으로 보아 低廉, 安定供給의 위험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둘째로 國內賦存資源의 積極的 開發과 活用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國內賦存資源이 豊富치 않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最惡의 경우에 믿을 수 있는 資源은 國內賦存資源일 뿐만 아니라 그의 最大開發 活用이란 絶對로 必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資源의 探査, 開發, 活用に 있는 모든 人力과 財源을 投下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大陸棚開發에도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海外資源의 確保에 注力하여야 한다. 不足한 資源을 얻기 위해서 海外資源開發을 위한 合作, 直接投資, 특히 自主開發輸入에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엔 現地置重과 現地協力이 基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海外資源의 供給處를 多邊化하는 努力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海外資源開發은 쉬운 길이 아니다. 많은 隘路와 危險을 隨伴하게 마련이다. 이와같은 隘路와 危險을 克服하기 위해서 開發體制의 確立이나 環境條件의 整備가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產業界의 決意와 政府의 支援이 要請된다. 그리고 資源確保 外資導入 政策은 이 海外資源開發 혹은 確保에 一助가 될 것이다.

네째는 資源外交의 積極化이다. 資源保有國과의 友好關係를 維持한다는 것은 絶對的이다. 이를 위해서 經濟協力, 技術協力도 考慮할 수 있는 것이고 政策의 輸入도 한 手段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消費國家들과 國際機構를 단돈어 團結된 힘으로 消費國家의 權益을 옹호하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資源情報의 蒐集과 處理體制의 整備이다. 70年代의 經營戰略에 있어 經營情報體制의 確立과 分析 그리고 그에 適應하는 迅速한 對應策이 重要함은 이미 言及한 바 있다. 이와 똑 같이 海外에서의 有望資源制權獲得부터 資源購買에 이르기까지 活動의 成敗는 豊富하고도 有効한 情報의 迅速한 傳達과 分析 및 處理에 依據하는 것이다. 新聞에 報道된 小麥購入上 價格損失은 바로 그의 좋은 一例라 할 수 있다.

情報蒐集은 民間企業단으로 質의 으로도 困難한 要素가 많기 때문에 海外의 既存 政府關係機關의 活用과 技術者의 派遣 등도 考慮되어야 한다. 그리고, 國內에선 蒐集된 情報를 整理 分析해서 迅速히 民間企業에 提供할 수 있도록 情報處理機能을 強化할 뿐만 아니라 政府와 民間企業의 情報處理體制와의 有機的인 提報가 必要하다.

여섯째는 輸出額爲主의 開發體制의 強行으로 國內賦存資源을 低價로 輸出하고 그것을 加工 내지 完製品化한 것으로 高價로 逆輸入하는 것과 같은 資源浪費의 産業政策도 長期的 眼目에서 보아 是正되어야 하겠다.

일곱째는 資源備蓄制의 擴大를 들 수 있다. 源流를 위시한 各種 資源으로서 國家産業發展에 基本이 되는 것은 相當期間 必要分을 國家非常時, 海外情報變化 등에 對備하여 備等하는 資源備蓄制의 擴大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덟째는 海外資源開發을 위한 人材養成, 現地調査

의 勵行, 資源確保, 機構充實 등과 같은 것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複雜은 不必要한 人員을 增加시키는 屋上屋式 複雜을 뜻하는 것이 아님은 再 明한 必要도 없다.

아홉째 輸入體制의 整備이다. 輸入을 資源獲得面과 代替시킬 뿐만 아니라 輸入量의 確保에 對應하는 物的 流通機構의 整備가 서둘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열번째로 政府는 海外資源의 Sellers' Market化 등 장래의 資源需給基調變化에 對應해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推進함과 同時에 科學技術의 開發과 綜合的인 資源政策을 推進하기 위해서 調査, 企劃의 機構를 擴充함과 아울러 關係機關의 協力體制를 整備하여 全地域의 視野에 立脚한 國際協調을 強하게 呼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一般國民으로서 「消費가 美德」이란 古來의 思想을 拂拭하고 昨今の 國際資源狀況을 冷徹히 洞索하고 現實의 資源에 대한 올바른 資源觀의 確立과 果敢한 消費抑制와 創意力開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企業의 활일과 經營戰略

性格을 달리하는 各 企業들이 國際資源危機에서 느끼는 程度라든가 그에 對處하는 經營戰略이 一律적으로 同一할 수는 없다. 그러나 影響에 感度의 範圍는 있을 것이 豫想되지만 거기에서 오는 影響을 免치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企業體로서는 審想天外의 戰略이 나올 筈 없더라도

첫째 國際資源波動이 自己 企業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資源情報은 國內외의 으로 廣汎하게 蒐集, 整理, 分析하여 여러 階段에 걸친 여러 對策을 마련하고 激突하는 資源供給事情에 適切하게 反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둘째, 資源多消費型 企業體로서는 資源保有國에서 直接投資, 合作 혹은 其他 手段에 의해서 資源의 開發輸入의 길을 열거나 長期的으로 安定 低廉한 資源의 供給體制構築에 全力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更新天然資源에 對해선 最大의 生産을 하도록 增産에 努力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는 業界共同으로 혹은 單獨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資源産業備蓄제도 業種에 따라선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네째는 資源을 代替하거나 적게 消費할 수 있는 方向으로 技術開發에 注力하여 資源의 效果的 使用에 成果를 견우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는 우리의 唯一한 資源인 人間資源을 最大限으로 活用할 수 있는 資源多消費型 産業 혹은 나아가선 將來엔 頭腦産業으로의 指向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섯째는 資源에 대한 官學産民의 協同體制가 構築되어야 한다. 政府는 賢明한 資源政策을, 學界는 資源學研究, 産業界는 資源의 産業에서의 效率的 活用을 一般大衆은 徹底한 資源의 消費抑制를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與件下에 놓이고 있기는 하지만 資源危機를 어느 정도는 克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